

## 유럽정체성과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질문 -

신 종 훈\*

- I. 서론
- II. 유럽공동체와 유럽정체성
- III.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분석과 그 한계
- IV. 결론

### I. 서론

1950년 5월 9일의 슈만선언을 출발신호로 하여 6개국이 역사상 최초의 초국가적(supranational) 공동체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창설한 이후 유럽공동체는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28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EU)이라는 거대한 정치적·경제적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럽을 새롭게 만든 성공적인 내러티브(Dinan 2004)로서 기술되어지고 있는 유럽통합의 역사서술은 이제 유럽 현대사의 중요한 주제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왜 하필이면 유럽에서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정치질서를 구현하는 실험이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은 유럽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중요한 학문적 주제로 부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역사서술은 대부분 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 관련된 정치와 경제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문제는 오랫동안 과소평가 되었다(신종훈 2012). 유럽정체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조금씩 부각되다가 1990년대 중반 경에 이르러 괄목할 만큼 증가

\* 경성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1993년 EU의 창설과 함께 유럽공동체가 질적 도약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 깔려있었다.<sup>1)</sup> 특히 EU를 통해서 진화해온 유럽정치의 복잡한 제도적 구조와 차원은 기존의 정치, 경제적 설명 틀을 가지고서는 해명하기 어려운 유럽적 차원의 사회형성을 부각시켰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결정의 배경에 깔린 구조적 힘으로써 유럽정체성의 중요성을 주목하게 되었다. 유럽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시점은 냉전질서가 와해되어 EU가 동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맞아들여 반쪽 유럽을 온전한 유럽으로 완성시키려는 논의들이 제기되는 시점과도 맞닿아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후 EU가 질적인 전환을 경험하거나 유럽헌법의 비준이 거부됨으로써 EU가 미래의 기획으로서의 방향성 상실의 위기를 경험하였던 2004/5년에, 즉 위기 와 전환의 시기마다 유럽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이 새롭게 제기되어 오고 있다.

유럽에서 유럽정체성 연구가 부각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중반 경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서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의 필요성을 타진하는 목소리, 즉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 활발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으로서 한 상일은 냉전의 해체, 사회주의권 몰락, 1990년대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EU나 NAFTA 등과 같은 지역주의의 강화, 서구의 근대성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아시아적인 것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열거하고 있다(한상일 2005, 7-8).<sup>2)</sup> 그의 설명을 받아

1) 유럽정체성 연구의 중요한 예를 들자면, 지로(René Girault)나 프랑크(Robert Frank)가 주축이 되어 공동으로 작업하였던 유럽정체성 연구그룹은 양차세계대전 시기의 집단기억, 지역적 혹은 국가적 정체성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Girault, René ed. 1994, *Identité et conscience européennes au XX siècle*, Paris; R. Frank, R. ed. 2004, *Les identités européennes au XX siècle*, Paris, 20. 슈말레(Wolfgang Schumale)는 담론적 구성물(diskursives Konstrukt)로서의 유럽의 개념을 통해서 유럽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 Schumale, Wolfgang 2000, *Geschichte Europas*, Wien/Köln/Weimar; Schmale, Wolfgang 2008, *Geschichte und Zukunft der Europäischen Identität*, Stuttgart.

2) 동아시아공동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공동체론의 대두 배경에 대하여 대부분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 다른 배경들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세계화의 심화, 중국의 급부상, 미국과 일본의 안보정책 방향의 변화, 동아시아 역내 경제의 상호의존성 증대 등(박승우 2011, 63).

들인다면 EU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을 촉발시킨 중요한 매개체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 학계의 많은 연구들에서 드러나듯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서 유럽통합의 과정은 동아시아공동체 창설 가능성을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도 하였고, EU는 동아시아공동체가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모델의 기능도 하였다.<sup>3)</sup>

이러한 사실이 이 글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되어주고 있다. 이 글은 우선 유럽 정체성이 유럽통합 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와 역할 등에 관한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그러한 논의의 기초 위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을 유럽정체성의 거울에 반성적으로 비추어 볼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은 이미 인식되고 있다. 한 예로 장훈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논의가 봉착하고 있는 이론적 빈곤을 언급하면서 유럽이론의 동아시아 적용은 몰역사성의 함정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 경험이란 거울은 과년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아시아 담론이 적실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여전히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이론들인 “기능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등의 그릇에다가 동아시아의 역사적 반목과 기억, 민족주의, [...] 동아시아인의 전통, [...] 같은 요소들을 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이종석 2011, 26-27).

장훈이 처한 것과 같은 딜레마는 유럽공동체를 다루는 설명이나 이론들을 동아시아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여전히 그 이론과 설명의 틀들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서도 버릴 수 없는 유용한 도구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 역시 이러한 입장 위에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다름을 전제로 유럽의 경험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 어떤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3)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시민사회」(이유선 2006),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박승우 2011) 등을 살펴보면 유럽공동체의 설명모델이 논의의 중요한 기반을 구축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 유럽공동체와 유럽정체성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역사가 슈말레(Wolfgang Schmale)는 정체성을 개인이나 집단의 자기규정(Selbstdefinition)으로서 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체성은 공동의 현실인식과 가치결정의 기초가 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위한 준거 틀 혹은 방향성의 기준으로서 작용한다. 슈말레에 의하면 유럽의 정체성을 논할 때 그것은 집단적 정체성이며 자기규정을 할 수 있는 집단(das Kollektive)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집단적 정체성은 또한 포용과 배제의 구조를 전제하고 있으며,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일정한 정도의 통일성으로 통합시켜 줌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유발시킨다(Schmale 2008, 37, 42). 코카(Jürgen Kocka)는 이러한 정체성이 많은 부분 공유되어진 역사로부터 형성되어진다고 설명한다(Kocka 2007,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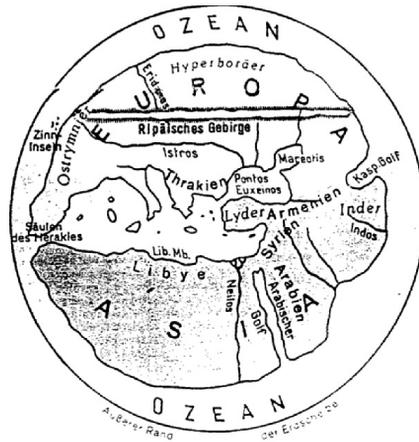
바이텐펠트(Werner Weidenfeld)에 의하면 집단적 정체성으로서 유럽의 정체성은 세 가지 상이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1) 유럽의 정체성은 공동의 역사로부터 유래하는 동일한 기원으로서의 유럽을 의미 한다: 유럽은 언제나 지리적 개념과 규범적 요구가 결합된 공동의 역사를 체험해 왔고, 그것이 유럽의 현재와 미래의 자의식을 정의한다. 2) 유럽의 정체성은 현재의 경험으로부터도 구성 된다: 냉전으로 인한 유럽의 분열로부터 분열된 유럽을 공동의 통합체제로 결속하려는 노력이 나왔으며,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실상과 유럽대륙 통합의 경험은 유럽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3) 미래에 대한 기대도 유럽정체성 구성에 기여 한다: 현재 EU 회원국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합의, 즉 EU 방향성에 대한 합의는 유럽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유럽정체성의 핵심적 내용이 된다(Weidenfeld 2007, 15).

이상의 정의들을 정리해 볼 때, 우리는 유럽정체성을 특정한 집단들이 각 시대마다 공유되어진 역사로부터 유럽에 대하여 가졌던 자기이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바이텐펠트의 설명을 단순화 하게 되면 유럽정체성을 한편으로는 문화와 역사적 유산에 근거를 두는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럽정체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기획으로서 구성되어지는 유럽정체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 유럽정체성이 유럽공동체와 각각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1.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유럽정체성: 유럽공동체 형성을 위한 토양**

해가 지는 곳 혹은 서양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ereb이라는 켈트족의 언어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유럽’이라는 이름(Gehler 2005, 11)은 처음에는 지리적 명칭으로만 사용되었다. 대략 기원전 700년 경 문서상 최초로 발견되었던 ‘유럽’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한 지역(Boiotia) 여신의 이름이었으며, 기원전 500년 경 헤카타이오스(Hekataios von Milet)가 그린 세계지도에서 유럽은 그리스 지역의 범위를 넘어 서서 세계를 아시아와 양분하고 있는 한 대륙으로서 묘사되고 있다. 이 지도는 이미 기원전 6세기 경 유럽이 부정확하지만 하나의 대륙을 지칭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기원전 500년 경 헤카타이오스가 그린 세계지도

헤로도토스(Herodotos)가 페르시아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에서 자유와 전제정치라는 대립구도로 유럽인과 아시아인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지리적 명칭으로서의 유럽은 어렵פות하게 정치적 함축을 가질 수 있었다.<sup>4)</sup>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격파한 살라미스 해전은 이후 유럽의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유럽이 탄생하는 순간으로 기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해석은 고대 그리스도

시국가들을 오늘날의 의미에서 유럽의 경험공간과 등치시킬 수 없다는 관점에 의해서 상대화 될 수 있었다(Mittag 2008, 23-24). 로마제국 시대에도 유럽 역시 지리적 명칭이었으며, 로마문명의 중심지는 유럽이라기보다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둘러싸고 있는 지중해 세계였으며 로마도 유럽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즉 고대세계에서 사료로 등장하는 유럽의 이름은 비록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 규범적 함축을 어렵게 가질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지리적 표현으로 남아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뒤로셀 2003, 29, 40).

그러나 중세를 거치면서 유럽은 가치와 문화공동체로서 성격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유럽이념(idea of Europe)에 규범적 차원이 가미되기 시작하였다. 크니핑(Franz Knipping)은 카롤루스 마그누스(Carolus Magnus)제국과 더불어 마련된 정치적 골격을 통해서 중세 천년 가까이 유럽은 고대문화와 기독교를 매개로 라틴계와 게르만계 민족들이 동질성을 체험하는 문화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카롤루스 이후 분열된 유럽은 수 세기 동안 정치적 이질성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통해서 유럽인들의 삶의 구체적 영역들이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세에 유럽적 차원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또 다른 제도로 수도원 공동체와 대학을 언급할 수 있다. 유럽의 전 지역에 퍼져있었지만 공동체의 규칙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 수도원 공동체는 유럽적 통일성에 대한 사유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또한 중세 유럽의 대학들도 유럽적이었다. 학자들과 학생들은 유럽 도처의 대학들 사이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었고, 공동의 학술 언어였던 라틴어는 그들 사이의 학문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럽의식의 형성이 가능할 수 있었다(Knipping 2004, 19-20).<sup>5)</sup>

기독교의 통일성에 기초한 문화공동체로서의 유럽이란 의식을 당시 유럽을 의미하였던 다른 이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중세에 유럽과 같은 뜻을 가지면서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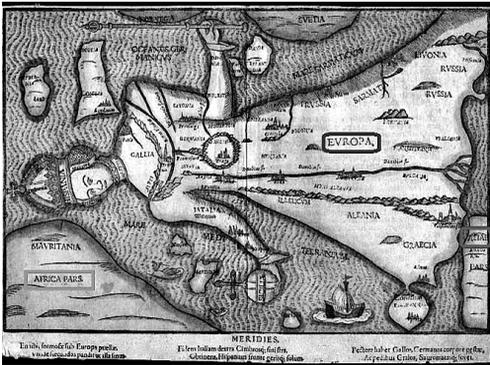
4) 헤로도토스는 아시아 민족들을 “여태까지 존재한 인종 중 가장 잔인하고 정의롭지 못한 민족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으며, 아시아인의 이미지에 맞서 시민들이 정치적 권한을 나눠 갖는 자유로운 그리스인이라는 이미지를 대비시켰다(폰타나 1999, 21-22).

립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들은 기독교 공화국(Respublica Christiana), 그리스도의 공화국(Respublica Christi), 신성한 제국(Sacrum Imperium) 등이었다. 뒤로젤(Jena-Baptiste Duroselle)에 의하면 기독교 공화국은 보편제국을 의미하였으며, 프랑크제국이 분열된 이후에도 '카롤루스에 대한 기억과 전설'은 보편제국을 회복하려는 꿈으로서 지속될 수 있었다(뒤로젤 2003, 53, 56).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적 혹은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유럽의 기원을 카롤루스 제국으로 삼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편성과 공통성의 기초 위에서 유럽정체성이 형성된 시기를 다수의 학자들은 중세 말 혹은 근대 초로 잡고 있다. 유럽적 자의식은 배제의 구조와 상이함의 담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의식하는 주체로서 유럽적인 집단의 형성이 유럽인들이 타자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근대의 시작을 전후하여 가능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Mittag 2008, 28-29; Weidenfeld 2007, 15; Schmale 2007, 63-64).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으로 유럽인들은 터키인들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였으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인들은 인디언이라는 또 다른 타자를 조우하였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간주되었던 유럽이 아주 작은 공간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자각하게 되었다(뒤로젤 2003, 77-91).

근대 이후에도 유럽은 다른 강조점들을 가지는 상위 공동체로서 사유되어졌다. 근대국가들이 형성되면서 유럽은 16, 17 세기부터 기독교 공화국 대신에 국가 체제를 표현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세력균형의 유럽국가 질서를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세력균형의 개념은 개별적인 근대국가들로 하여금 초국가적인 유럽이라는 지붕 아래에서 사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럽대륙을 하나의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게 하였다(Knippling 2004, 21-22). 이러한 의식의 대표적인 시

5) 물론 당시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유럽이 오늘날의 서유럽에 한정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리스와 로마의 유산을 간직했던 비잔틴 제국은 당시 가톨릭 기독교가 지배했던 기독교(서) 유럽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 문명으로 스스로를 인식했다는 점에 있어서 당시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유럽은 반쪽 유럽만을 대변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Mittag 2008, 27).



〈그림 2〉 처녀의 몸을 한 유럽 (1589)

각적 상징화는 유럽대륙이 여인의 몸으로 그려지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슈말레 2006, 98-104). 18세기 이후 유럽은 계몽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유럽문명의 다른 이름이었다. 다양한 국가에 속한 유럽의 문필가, 철학자, 예술가들은 대부분 프랑

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으며, 유럽은 학문과 기술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유럽인들은 유럽문명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세계시민으로서 이해하게 되었다(Knippling 2004, 21). 19세기에 민족주의 이념의 발흥과 함께 유럽이라는 이름은 민족(국민, nation) 혹은 국민국가(nation-state)와 대비되는 의미를 가졌고, 미약하였지만 유럽주의는 민족주의의 대척점에 위치할 수 있었다(뒤로젤 2003, 228-241).

유럽의 개념에 대한 고대부터 19세기에까지 이르는 짧은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중세 이후부터 유럽의 다양한 개별적 힘들이 유럽이라는 이름의 공통성의 기반을 의식하면서 발전되어왔다는 사실을 유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크니핑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럽에서의 “각각의 특수성들은 공동의 문화권의 품속에서 전개 되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공동의 지식과 경험의 내용들을 구성해왔고, 그것들은 유럽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거름이 되었다(Knippling 2004, 19).

개별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상위공동체에 함께 속해있다는 유럽인들의 정체성의 확인은 중세 말 이후부터 유럽사에서 유럽의 국가들을 정치적으로 통합시키려는 제안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표현되어 왔다. 피르스터(Rolf Foerster)는 기념비적

저작에서 1306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사에서 제기되었던 182건을 헤아리는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 제안되었던 계획들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내었다(Foerster 1967).<sup>6)</sup> 물론 각각의 계획들에 표출된 구체적인 정치적 동기, 통합의 범위와 정도들은 상이하였지만, 그 계획들이 유럽의 평화를 지키고 지속시키려는 염원을 표현하였고 개별국가의 패권주의를 제한하기 위해 유럽이 도구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놀랄 만큼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었다(Foerster 1963, 7-23).

이 같은 정치적 통합 계획들은 각각의 시대에 유럽을 연방국가적 혹은 국가연합적인 구조로 통합하려는 구체적인 제안들과 제도적인 장치들의 창설을 포함하고 있었고, 유럽인들이 양차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유럽의 건설을 소망하는 사유를 품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유들이 접목할 수 있는 역사적 기억들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유의 대표적인 예로 이차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 정치가이자 유럽통합의 선구자 중 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는 스피넬리(Altiero Spinelli)가 중심이 되어 감옥에서 작성한 1941년 7월의 벤토테네 선언서(Ventotene Manifesto)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의 유럽질서를 구상하면서 스피넬리는 국민 국가가 인류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유럽연방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스피넬리의 노력으로 1943년 8월 유럽연방주의자 운동(European Federalist Movement)이라는 조직이 탄생하였고 이 조직은 전후 유럽통합운동에 동력을 제공한 중요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sup>7)</sup>

정부 차원에서 유럽통합계획은 앞서 언급한 슈만계획을 통해서 창설된 ECSC를 통해서 최초로 현실화 되었다. 비록 프랑스 외무부장관 슈만(Robert Schuman)이 제안하였지만 초국가적 공동체 창설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는 이 계획의 원래 기

6) 이 저작이 나오기 전에 포르스터는 유럽의 정치적 통합 계획들의 발췌 본들을 엮은 사료집(Foerster 1963)도 출판하였다.

7) 스피넬리 구상 속의 유럽연방은 성문헌법, 초국가적 정부, 단일군대, 사법재판소 등의 구체적 제도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었다(Lipgens 1977, 110-113).

안자는 유럽통합의 가장 중요한 선구자로 간주되는 모네(Jean Monnet)였다 (Knipping 2002, 80-82). 그리고 모네가 스스로 ECSC 방식이라고 표현했던 유럽 건설의 방법이 바로 유럽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연방주의적 접근이었다:

“우리는 사실상의 연대확립과 같은 작은 성과들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성과들로부터 점진적으로 연방이 출현할 것이다. 나는 어느 좋은 날 유럽이 어떤 거대한 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단번에 창설될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는다. [...] 우리가 선택한 실용적인 방식(ECSC를 통한 점진적인 접근)이 [...] 결국 연방을 탄생시킬 것이다.”(Burgess 2000, 35)<sup>8)</sup>

유럽통합의 아버지들인 스피넬리와 모네의 전후 질서 구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전의 유럽사와 유럽의 정체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연방주의적 유럽의 건설에 대한 사유였고, 그러한 사유의 바탕 위에서 오늘날 EU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최초의 초국가적인 공동체 ECSC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역사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며 공동으로 체험되어진 유럽이라는 문화적 통일성이 유럽정체성 형성의 밑거름이 되었고, 유럽정체성은 유럽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름진 토양이 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기획으로서의 유럽정체성: 유럽공동체 지속을 위한 자양분

우리는 유럽사의 각 시대마다 유럽인들이 유럽에 대한 자의식을 가져왔으며, 유럽에 대한 자의식으로서의 유럽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술체(Hagen Schulze)는 유럽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집단적이고 상상적인 스케치”로 정의하였다(Gehler 2005, 12-13). 이 정의에 접목한다면 과거와 구별성을 가지는 현대적 유럽정체성에 관하여 논의할 수도 있다. 이때 우리는 현재적 유럽정체성의 핵심을 유럽공동체에 대한 유럽인들의 자기규정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전

8) 괄호는 필자의 보충.

후 유럽인들이 유럽의 이념을 공동체의 제도화라는 과정을 통하여 구현해왔고, 다양한 제도화 과정의 결과가 지금의 EU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차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인들에 의해서 국민국가 중심의 정치적 협력과 정치문화의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실험이 성공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정체성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초국가적 유럽공동체의 발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럽정체성에 틀을 제공하는 새로운 맥락을 제공할 수 있었다(Pagden 2002, 20-24 비교). 따라서 유럽의 현재적 정체성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성격의 정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럽통합은 이제 유럽에서 새로운 정치와 문화적 협력의 주제가 되었고, 정치적 성향들은 달랐지만 유럽의 통일을 목표로 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럽’을 통하여 정의하는 과거와는 다른 유럽적인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슈말레의 표현에 의하면 “유럽 데모스(European Demos)”<sup>9)</sup>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에 의하면 유럽 데모스는 EU의 모든 시민들이다. 그리고 그는 유럽 데모스의 핵으로 기능하는 수 백 만 명의 EU 관료들과 학자들이 유럽의 국민들을 유럽 데모스로 결합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Schmale 2007, 73-75).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차원, 즉 아래로부터의 유럽정체성 형성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Gillespie 외 2006, 144-148).

뿐만 아니라 EU 스스로가 유럽 데모스와 유럽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로부터 유럽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Gillespie 외 2006, 144). 기존의 6개국 공동체가 9개국으로 확장되면서 유럽공동체가 최초로 질적 변화를 경험하였던 1973년 회원국 정상들은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유럽 정체성 선언(Declaration on European Identity)’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정체성정책을 시작하였다(Gillespie 외 2006, 133-134). 이후 유럽공동체는 스스로의 이념

9) 유럽 데모스라는 개념은 슈말레가 고안한 용어는 아니다. 슈말레가 이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EU가 민주적 결핍의 문제를 보강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데모스론(Demosthese)이 이전부터 언급되고 있었다. 이때 데모스는 정치적 주권의 담지자로 이해할 수 있다(Quenzel 2005, 10-13).

을 다양한 정체성정책들을 통해 구현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유럽정체성은 현재진행형의 과정이며 그것은 자연적 성장의 과정이 아닌 EU의 정체성정책을 통해서 구성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EU의 정체성정책은 대략 6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1) 가시적 상징들을 통한 유럽 공동체성의 강조와 공유 (유럽기, 유럽찬가, 유럽의 날 등); 2) 국적과 상관 없이 거주지에서 유럽의회와 유럽자치단체의 선거권을 가지는 유럽 시민권의 정의 (그 외 유럽 인권협약과 EU 기본권헌장의 승인 등); 3) 유로화로 대변되는 공동의 화폐를 통한 경제적 공동체 의식; 4) 미래의 기획으로서 EU가 지향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선언. (기본권과 인권 존중, 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경제적 번영, 평화의 기획으로서의 EU의 자기규정,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독립된 주체로서의 EU 등); 5) 공동 시장, 공동의 법, 공동의 외교안보정책, 공동의 교육 및 학문 공간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 6) 문화 및 역사정책 (정체성을 함양하는 역사서술의 역할 강조, 유럽 전시회, 유럽박물관, 유럽적 차원에서의 출판 장려, 역사 및 문화 프로젝트 지원, 홀로코스트에 대한 공동의 기억정책 등)(Schmale 2008, 127-128).

이처럼 EU가 지속적인 정체성정책을 통하여 유럽공동체의 지속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통합이 심화되고 새로운 회원국들의 가입을 통한 EU의 외부경계가 변화되는 역동성을 경험할 때마다 유럽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문제, 유럽헌법 비준 거부 문제 등 EU의 질적인 변화와 위기의 시기에 유럽정체성에 대한 반성과 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체클(Jeffrey T. Checkel)과 카첸슈타인(Peter J. Katzenstein)은 유럽헌법 비준 실패 이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망연한 상황의 EU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유럽정체성의 배는 해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물결로 들어섰다. 배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거린다. (...) 몇몇 선원들은 큰소리로 불만을 터뜨린다. 식수와 음식은 충분하지만 지도와 망원경을 잃어버렸다. 방향 상실과 음울한 날씨를 예

감하면서 일부 승객들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지난 여행의 성공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고, 불만에 가득 찬 일부 다른 승객들은 구명보트 가까이로 몰려들고 있다 (…). 여행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희망과 자신감이 아닌, 불안과 걱정이다.”(Checkel 2009, 1)

유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유럽헌법 비준 거부 직후 룩셈부르크 총리 옹커(Jean-Claude Juncker)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국민국가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하여 이제 유럽은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고 한탄하였다(Weidenfeld 2007, 11). 이러한 언급들은 유럽헌법 마련을 통해서 유럽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실패한 EU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sup>10)</sup>

이렇듯 EU의 확장과 헌법제정 과정은 EU의 존속과 관련하여 유럽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터키의 EU 가입과 관련된 논쟁<sup>11)</sup> 및 EU 헌법 제정 당시 전문에 유럽정체성의 기독교적 유산을 언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격렬한 대한 논쟁은 유럽의 포용과 배제의 경제지음에 대한 이견들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이러한 이견들은 유럽인들의 자기인식, 즉 정체성의 문제가 유럽의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헌법의 전문에 유럽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떤 문화적 유산을 언급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둘러싸고 벌어진 2003년의 논쟁에서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계몽사상을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민주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견해 모두 다수의 지지를 받지

10) 물론 비준에 실패한 유럽헌법은 유럽연방국가를 연상시키는 헌법의 조항들을 삭제하고 EU의 거버넌스에 필요한 유럽헌법 내용의 핵심을 보존한 채 개정되어 리스본조약으로 2009년 12월 발효할 수 있었다.

11)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둘러싼 유럽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신중훈 2011, 「유럽연합의 확장과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문제 - 유럽 정체성에 대한 한 물음」; Asad 2002, “Muslims and European Identity: Can Europe Represent Islam?”

는 못했지만, 이 논쟁은 유럽의 대변자들이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에 대한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Meyer 2004, 14-15).<sup>12)</sup>

터키의 EU 가입과 관련하여 학자들의 견해 역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벨러(Hans-Ulrich Wehler)는 터키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성장한 유럽적 정체성을 공유하지도 않고 유럽적 정체성의 지속에도 기여할 수도 없는 비유럽 국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만약 터키가 EU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유럽통합의 원대한 기획이 파괴될 것이라고 장담하기까지 하였다(Wehler 2004, 6-8). 벨러는 터키가 기독교적인 유럽의 문화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EU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단정하고 있다. 코카(Jürgen Kocka) 역시 터키의 EU 가입에 반대한다. 터키의 사회·정치적 체제가 코펜하겐 기준, 즉 EU가 가입조건으로 내세운 규범적인 기본가치들을 충족시키더라도 코카는 터키가 유럽의 구성원이 아닌 이웃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카의 경우 터키의 EU 가입반대 이유가 벨러와는 다르다. 그는 반대의 중요한 이유로서 역사 속에서 성장한 유럽문화권의 범주가 아닌 EU 거버넌스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터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마그레브(Maghreb) 국가들이 EU에 가입하게 되면 EU는 과대팽창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집단적인 행동과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Kocka 2007, 54).

그러나 바이텐펠트는 터키 가입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에 의하면 EU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존재한다고 가정되고 있지만, 실상은 유럽의 모든 시민들 그리고 그들의 열망과 동기들을 통합하지 못했던 유럽의 문화적 이상(규범적 성격의 공동의 문화적 유산)을 배타적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에게 있어서 유럽 정치문화의 정수는 유럽역사 속에 나타났던 여러

12) 결국 2004년에 체결된 유럽헌법조약의 전문은 유럽국민들이 “점점 더 긴밀하게 자신들의 운명을 공동으로 만들어 갈 것을” 결의하였으며, 그 공동의 운명이 “유럽의 문화적, 종교적, 인문주의적 유산”과 무관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키페디아 ‘유럽헌법조약’ 독일어판 내용). 명시적으로 기독교라는 단어를 배제하였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유럽의 종교적 유산이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Checkel 외 2009b, 14-15 참조).

정체성들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데에 있다. 다양한 정체성들의 중첩은 긴장을 낳았고, 그러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유럽정체성 형성과정에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텐펠트는 한때 유럽에 대한 위협으로서 또는 비유럽적인 국가로서 간주되었던 터키를 유럽에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유럽정체성을 보완하는 다양성의 소중한 한 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다원적 가치를 가진 유럽 정치문화의 조건성(Bedingtheit)과 제한성을 인식할 때 새로운 정체성 형성이 성공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바이텐펠트에 의하면 유럽의 성숙성과 미숙성의 문제가 될 것이다(Weidenfeld 2007, 21).

이상의 논의들을 통하여 하나의 정치체제(polity)로서 EU가 그 최종의 경계를 어디에 그릴 것인가라는 유럽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논쟁중이며, 유럽헌법의 거부와 함께 EU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되기 어려운 전망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럴수록 미래의 방향성이 투영된 정체성의 재구성, 즉 EU의 정치화를 통한 유럽통합과정의 새로운 근거제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학계와 유럽연합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Kaelble 2009, 193-212). 마이어(John Meyer)의 진술처럼 여전히 “유럽과 유럽의 인민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불확실하며, 다양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Checkel 외 2009c, 226)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기획으로서 구성되어지는 유럽정체성이 유럽공동체의 지속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유럽 시민들 사이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승인의 정도가 감소하면 할수록 정통성(legitimacy)을 필요로 하는 확장된 EU에게 기획으로서의 유럽정체성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 III.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분석과 그 한계

동아시아공동체를 창설하려는 아시아에서의 최초의 구체적인 논의는 일본에 의해서 제기된 19세기 후반 아시아 연대론, 1930년대 동아협동체론, 1940년대 대동아공영권 등과 같이 제국주의적 야망을 도모하기 위한 형식을 띠었다(한상일 2005, 9-18). 중국의 경우 일차세계대전 직후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거부하면서 이대조가 주장한 아시아 피압박 민족들의 '이주연방' 같은 지역협의체 같이 제국주의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형식을 띠고 전개되었다(김교빈 2006, 117). 이 같은 논의들은 제국주의적 팽창과 관련된 역사적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공동체에 속하게 될 다른 구성 국가들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들을 동등하게 고려하지 않은 자국 중심의 일방적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을 위한 지속적이거나 건설적인 논의의 기초가 될 수는 없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한, 중, 일 삼국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오기 전까지는 동아시아의 공간관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20세기 후반부까지 동아시아인들은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관점에서 동아시아를 통합 가능한 긴밀한 공동체적 공간으로 사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종석은 냉전의 해체와 함께 마침내 동아시아가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불평등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언급하였다(이종석 2011, 15). 냉전 해체 이후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국제조류에 직면하면서, 그리고 서구 근대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아시아의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네트워크 결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특집좌담 2002, 261).

동아시아공동체를 일종의 '신화'로 표현하면서 최근 유행하는 공동체론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회의적인 시선을 던지는 입장들이 일부 존재하지만(하영선 2007, 13; 이한우 2007, 75-77),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 참가하는 다수의 견해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아시아공동체의 창설을 찬성하

는 경우에도 찬성의 동기, 공동체의 성격 및 구체적인 형태, 공동체의 범위 등과 관련 하여 그려지는 그림의 모습들이 제 각기 달라서 공통의 분모를 찾거나 지배적인 경향성을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로 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공동체 창설 필요성에 대한 동기와 공동체의 성격 및 실체 등에 대한 한·중·일 3국의 다양한 견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한국의 경우 공동체 창설의 동기들은 서구문명 혹은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대안적 질서 창출과 같은 추상적 거대담론에서부터 한반도 평화정착 구조의 창출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하다(박승우 2011; 김종욱 2011; 손기웅 외 2012). 공동체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민족주의와 국민국가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국가가 통합의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대립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창설되어야 할 구체적인 공동체의 모습 역시 경제공동체로부터 문화공동체와 안보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폭을 가지고 있다(박승우 2011, 64).

중국의 경우는 동아시아공동체 필요성의 동기를 동아시아 전략적 차원에서 찾고 있다. 이때 동아시아 전략은 중국의 세계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아시아공동체의 제도화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주권을 제한하지 않는 ASEAN 방식과 같은 정부간협력주의적(inter-governmental)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협상, 협조, 대화 등을 통하여 협력적이며 조화로운 지역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협조적 구조의 마련에 만족하고 있다(변창구 2011, 6, 17-19; 이한우 2007, 68, 78-79). 그것은 EU가 일부 채택하고 있는 초국가적(supranational) 접근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방식이다.

일본에서의 논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의 근거를 동아시아지역과 연루된 일본의 경제적 이해의 충족, 정치안보적인 차원에서 미일 협조체제에 기초한 기능적

13) 이유선은 국가나 민족이 동아시아 창설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시민사회가 주류가 되어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친다(이유선 2006). 반면 한상일은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국가와 민족을 뛰어 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한상일 2005, 23-26).

공동체의 이점, 지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연대 등에서 찾고 있다 (진창수 2011, 7, 9, 13; 이한우 2007, 68, 73). 공동체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다수가 EU를 모델로서 상정하고 있다. 즉 주권의 일부를 공동체의 기구에 양도하는 초국가적 방식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로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의 지배 등 EU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공동체를 문화, 환경, 에너지, 농업, 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의 장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이한우 2007, 73-74, 78-79).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일부만 간략하게 정리한 3국의 논의들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 적어도 학적, 혹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에서의 간전기 동안 유럽통합 이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상황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그러나 당시 유럽에서 유럽공동체를 창설하려는 지대한 관심들은 통합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유럽은 그 대신 이차세계대전이라는 과국을 경험해만 했다. 담론이 제도화의 과정으로 발전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알 수가 있다. 이차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경우에서처럼 공동체 창설을 위한 절박한 역사적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은 그냥 담론으로만 거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 창설을 위한 변수들의 다양성은 실현 가능한 여러 가능성들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방향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동력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응집력 있는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추동력의 부족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서 후자의 문제점, 즉 담론의 제도화로의 이행 동력의 부족이 장점보다 더 부각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공동체, 어떤 제도적 장치, 혹은 어떤 현실적인 목표들 등에 관한 상세한 언급이 결여된 채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 구체적인 현실의 제약들과 필요성들을 사변적 차원에서만

14) 샤보(Jean-Luc Chabot)의 연구에 따르면 1919년과 1939년 사이 일간지 기사를 제외하고도 유럽통합의 이념에 대해 600권이 넘는 책과 논문이 발표될 정도였다(슈말레 2006, 159).

실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의 담론들은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과 같은 냉엄한 현실정치적인 제약과 이해관계의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간절한 설득력 혹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동아시아의 범주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담론들은 약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광의의 개념으로서 동아시아를 기본적으로 동남아를 포함하는 지리적 개념으로 파악하면서도 동아시아공동체와 관련된 논의에서 한국 학계의 기본적인 시야는 협의의 동아시아 즉 한·중·일 3국이 위치한 동북아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특집좌담 2002, 262-263; 김교빈 2006, 114; 이종석 2011, 10-11). 박승우는 최근에 와서는 동아시아를 동남아까지 포괄하는 보다 광역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박승우 2011, 62), 동아시아의 범위와 관련한 한국 학계의 논의는 여전히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처음부터 그 경계가 모호한 동아시아공동체가 아닌 '동북아공동체'를 현실적인 추진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손기웅 외 2012).

일본의 경우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사고하고 있지만, 최근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자, 이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도 포함시키는 더욱 광역화된 동아시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화사상의 전통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중국이 동아시아에 위치한 지역범주의 국가라는 인식은 희박하다. 그러나 최근 경제협력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때 중국은 ASEAN+3 회원국들을 포괄하는 동남아와 동북아, 즉 지리적 개념의 동아시아를 선호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과 한국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역외 국가이지만 동아시아의 경제와 정치 질서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을 역외 회원국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입장이 제기되기까지 하였다(이종석 2011, 11-13).

이처럼 동아시아를 다루는 학계의 논의는 동아시아의 범위를 어느 한 범주에 한정시키지 않고 맥락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동아시아 국가인 북한과 몽골은 정확한 이유가 언급되지 않은 채 동아시아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범주의 이러한 유동성과 자의성은 지금까지의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구체성과 현실성의 결여라는 심각한 결함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범위가 탄력적인 기존의 담론은 현실적으로 어떤 성격과 어떤 범위를 가진 동아시아공동체를 결성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적합한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공동체도 6개국에서 출발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처음 시작할 때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상위공동체로서의 유럽에 대한 역사적 의식 있었고, 스스로 유럽의 핵심 단위로 파악하였던 6개국은 공동체가 확대될 것을 시작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유럽과 비교될 만한 상위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이유로 범위의 혼선은 공동체 자체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논의에서 범위의 불명확성은 동아시아공동체가 기초해야 하거나 혹은 구성하고 지향해야할 정체성의 질문에 대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의식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가장 큰 약점으로 비쳐진다. 물론 박승우는 동아시아의 동질성과 정체성에 대한 담론으로서 아이덴티티 담론을 언급하고 있다(박승우 2011, 77-83). 그 중 동아시아 국가와 민족이 공통된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문화동질성 담론’은 어떤 공통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할 때 억지주장에 머무르게 된다. 문화동질성 담론과 구분되고 있는 ‘동아시아 정체성’ 담론은 지적 실험과 일상적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즉 구성되어지는 정체성을 언급함으로써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정체성 구성의 주체인 사회적 행위자 및 그 행위자가 소통함으로써 끊임없이 정체성을 재생산할 사회가 동아시아의 차원에서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이유선 2006, 124, 127, 143 비교).

1990년대 전까지 동아시아가 사실상 기능 가능한 공동체적 공간으로서 사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럽과 비교해 볼 때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공간으로서 동아시아는 적어도 정체성을 형성할 정도의 공동의 정치적, 문화적

자의식을 가지지 못한 공간이었다. 물론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 등을 문화적으로 공유해왔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은 자의적이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유교나 한자 문화권은 동아시아의 일부 지역의 문화적 공통성을 대변하지만 동아시아 전체를 시각에 담을 때 발견되는 문화적 다양성을 상쇄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주류와 중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중화사상의 기본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며, 중국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관찰되는 질서를 동아시아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IV. 결론

글의 전반부에서 필자는 유럽공동체와 유럽정체성의 관계를 과거와 현재라는 두 가지 성격이 다른 정체성의 구분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유럽정체성은 유럽이라는 상위공동체 이념에 대한 유럽인들의 의식들이었으며, 그것은 규범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역사·문화적 공동체 의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다. 다양한 개별주의적 힘들의 전개와 병행하면서 기독교 공화국으로서의 유럽, 국가간 체제의 상위공동체로서의 유럽, 유럽문명으로서의 유럽 등이 유럽에 통일성을 부여해 줄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유럽정체성은 이차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최초로 국민국가적인 질서를 수정하면서 초국가적인 유럽공동체라는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이 되었다. 그 결과 EU는 자신의 지향점으로서 '다양성 속의 통일(unity in diversity)'이라는 슬로건을 자신감 있게 내세울 수 있었다. 기획으로서의 유럽정체성은 이후 '유럽'이라는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자양분의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유럽공동체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으로서 특히 EU의 정체성정책을 통하여, 비록 방향성을 상실할 때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었다. EU의 지속 가능성 여부는 그러한 정체성의 구성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정체성과 유럽공동체의 이러한 상관성을 우리는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에 유사하게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는 유럽이 지은 이름이었고, 17세기 초 유럽인들이 그린 지도를 통하여 18세기 경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비로소 아시아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아시아라는 표현을 유럽중심의 근대국제질서를 받아들인 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하영선 2007, 6-7)에서 역사적 유산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아시아'는 없었다. 즉 만약 동아시아공동체가 창설된다면, 그 공동체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으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체성은 현재적 관계와 미래의 목표를 통하여 언제든지 새롭게 구성되거나 재구성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공동체에 속하게 될 구성원들이 자신들 사이의 관계와 목표 설정에 서로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을 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이 정체성문제를 다룰 때 출발해야 할 인식의 지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은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구원(舊怨)들을 정리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고르게 하는 작업일 것이다.

(투고일: 2014. 1. 22 심사시작일: 2014. 2. 12 심사종료일: 2014. 3. 13)

주제어 : 유럽, 유럽공동체, 유럽정체성, 동아시아,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담론

Keywords : Europe, European community, identity of Europe, East Asia, East Asian community, discourse of East Asian Community.

## [참고문헌]

- Asad, Talal 2002, "Muslims and European Identity: Can Europe Represent Islam?", in Pagden, Anthony ed., *The Idea of Europe. From Antiquity to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 Burgess, Michael 2000, *Federalism and European Union: the Building of Europe, 1950-2000*, London/New York.
- Checkel, Jeffrey T./Katzenstein, Peter J. ed. 2009a, *European Identity*, Cambridge.
- Checkel, Jeffrey T./Katzenstein, Peter J. 2009b, "The politicization of European identities", in Checkel, Jeffrey T./Katzenstein, Peter J. ed., *European Identity*, Cambridge.
- Checkel, Jeffrey T./Katzenstein, Peter J. 2009c, "Conclusion - European identity in context", in Checkel, Jeffrey T./Katzenstein, Peter J. ed., *European Identity*, Cambridge.
- Dinan, Desmond 2004, *Europe Recast. A History of European Union*, London.
- Gehler, Michael 2005, *Europa. Ideen Institutionen Vereinigung*, München.
- Gillespie, Paul/Laffan, Brigid 2006, "European Identity: Theory and empirics", in Cini, Michelle/Bourne, Angela K. ed., *European Union Studies*, Hampshire/New York.
- Foerster, Rolf Helmut ed. 1963, *Die Idee Europa 1300-1946. Quellen zur Geschichte der politischen Einigung*, München.
- Foerster, Rolf Helmut 1967, *Europa. Geschichte einer politischen Idee*, München.
- Kaelble, Hartmut 2009 "Identification with Europe and politicization of the EU since the 1980s", in Checkel, Jeffrey T./Katzenstein, Peter J. ed., *European Identity*, Cambridge.
- Knipping, Franz 2002, "Jean Monnet, Robert Schman und der Durchbruch zur europäischen Einigung", in Duchhardt, Heinz ed., *Europäer des 20. Jahrhunderts*, Mainz.
- Knipping, Franz 2004, *Rom, 25. März 1957, Die Einigung Europas*, München.
- Kocka, Jürgen 2007, "Europäische Identität als Befund, Entwurf und Handlungsgrundlage", in Nida-Rümelin/Weidenfeld, Werner ed., *Europäische Identität: Voraussetzungen und Strategien*, Baden-Baden.
- Lipgens, Walter 1977, *Die Anfänge der europäischen Einigungspolitik 1945-1950. Erster Teil: 1945-1950*, Stuttgart.
- Meyer, Thomas 2004, *Die Identität Europas. Der EU eine Seele?*, Frankfurt a. M.

- Mittag, Jürgen 2008, *Kleine Geschichte der Europäischen Union. Von der Europaidee bis zur Gegenwart*, Münst.
- Pagden, Anthony ed. 2002, *The Idea of Europe. From Antiquity to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 Quenzel, Gudrun 2005, *Konstruktionen von Europa. Die europäische Identität und die Kulturpolitik der europäischen Union*, Bielefeld.
- Schmale, Wolfgang 2007, "Eckpunkte einer Geschichte europäischer Identität", in Nida-Rümelin/Weidenfeld, Werner ed., *Europäische Identität: Voraussetzungen und Strategien*, Baden-Baden.
- Schumale, Wolfgang 2008, *Geschichte und Zukunft der Europäischen Identität*, Stuttgart.
- Wehler, Hans-Ulrich 2004, "Verblendetes Harakiri. Die Türkei-Beitritt zerstört die EU",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34.
- Weidenfeld, Werner, "Reden über Europa - die Neubegründung des europäischen Integrationsprojekts", in Nida-Rümelin/Weidenfeld, Werner ed. 2007, *Europäische Identität: Voraussetzungen und Strategien*, Baden-Baden.
- 김교빈 2006, 「한국의 동아시아공동체론: 동양철학의 관점으로 본 동아시아공동체론」 『오늘의 동양사상』.
- 김종욱 2011,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 『통일정책연구』 20.
- 박승우 2011,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리뷰』 1.
- 변창구 2011,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한국동북아논총』 59.
- 볼프강 슈말레 (박용희 옮김) 2006, 『유럽의 재발견』, 을유문화사.
- 손기웅 외 2012,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 신중훈 2011, 「유럽연합의 확장과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문제 - 유럽 정체성에 대한 한 물음」 『서양사론』 108.
- \_\_\_\_\_ 2012, 「유럽통합연구사: 정치학과 역사학의 접근」 『한국사학사학보』 25.
- 유현석 2011,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와 한국의 전략: 신아시아 외교의 재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2.
- 이유선 2006,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시민사회」 『사회와 철학』 11.

- 이종석 2011, 『동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세종연구소.
- 이한우 2007,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시각과 이해: 민간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7.
- 장-바티스트 뒤로젤 (이규현, 이용재 옮김) 2003, 『유럽의 탄생』, 지식의 풍경.
- 조셉 폰타나 지음 (김원중 옮김) 1999, 『거울에 비친 유럽』, 새물결.
- 진창수 2011,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전개,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세종연구소.
- 특집좌담 2002, 「국가를 넘어 동아시아 공동체는 가능한가」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9.
- 하영선 2007, 「동아시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East Asia Brief』 2.
- 한상일 2005, 「동아시아 공동체론: 실체인가, 환상인가?」 『동양정치사상』 4.

[Abstract]

## **The Identity of Europe and the Discourse of East Asian Community: a critical Question about the Identity of East Asian Community**

Shin, Jong-Hoon

(Gyeongsang National Univ.)

This article has two main subjects. The first theme is the question about the meaning of the identity of Europe for the European community. The second topic is a critical analysis of discourse of the East Asian community. With respect to the second theme, the European community, a successful model of regional community, is used as a mirror in which the East Asian community is reflected for comparison.

The identity of Europe which represents the self-consciousness of Europeans about Europe has been the rich soil for the Europe's first supranational community when it is realized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European identity is also the nourishing for the continuat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plays a key role in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the future Europe.

Unlike European case, East Asia has not the identity of East Asia which has grown up in the history. Thus, in order to establish an East Asian community, the construction of the East Asian identity should be preceded. The resolution of conflicts in the history is the important premise of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s identity. Therefore, without the resolution of conflicts such as the problems of territory and historiography etc., the realization of the East Asian community seems to be unthinkable.